

장편소설의 인물관계설정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 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못 보여주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모순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가 못 그려내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결정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83페이지)

장편소설에서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은 새로운 시대적문제를 안고있는 생활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그려내고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장편소설에서의 인물관계는 다른 형태의 소설에서의 인물관계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특성은 한마디로 장편소설의 인물관계는 무게있는 극을 안고있는 인물관계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장편소설창작에서 무게있는 극을 안고있는 인물관계를 설정한다는것은 장편소설에 그려지는 방대한 생활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종일관하게 극적전인력을 보장할수 있으며 심각한 운명적문제를 안고 극적으로 얹힌 인물관계를 설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단편소설, 중편소설의 인물관계도 극적인 인물관계로 되어야 그 형태적특성에 맞는 극적인 이야기를 조직할수 있다. 그러나 단편소설, 중편소설의 극은 그 무게와 깊이에 있어서 장편소설과 엄연히 구별된다. 하나의 사건적계기나 한 인간의 지속적인 성격발전과정만을 안고있는 극에 비길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방대한 시대적화폭들의 흐름전반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시대적문제, 운명적문제를 드러내며 각이한 인물들의 운명발전의 이야기를 낳을수 있는 극이 바로 장편소설의 극이다.

장편소설창작의 인물관계설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인물관계를 심오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물관계를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설정하는것은 작품의 종자, 주제를 형상적으로 해명할수 있도록 구성을 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장편소설의 인물관계를 무게있는 극을 안고있는 관계로 만들자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인물관계가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심오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로 얹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본상대인물의 설정이다.

기본상대인물은 작품이 제기한 심오한 인간문제를 놓고 주인공과 뚜렷이 대조되거나 대비되는 인물이다.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일정한 형상적몹을 담당하고있지만 작품에 제기한 기본주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관계이다. 이러한 형상적역할에 맞게 주인공과 성격발전, 운명선에서의 대조, 대립, 충돌을 통하여 작품에서 제기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보여줄수 있도록 기본상대인물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장편소설에서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의 관계는 심오한 사회적문제, 운명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사상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되어야 한다.

적대적인물이 기본상대인물로 설정되는 작품에서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과의 관계는

정치적견해와 립장, 인생관 등에서 뚜렷하게 대립되는 사상적관계이며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안고있는 운명적인 관계이다. 적들에게도 자기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생활철학이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적인물사이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철학의 대결과정을 통하여 심오한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실례로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에서 전학민과 맥아더의 관계를 들수 있다.

작품에서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탄생문제를 기본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본문제해결에서 전학민과 맥아더의 관계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전학민은 조선인민과 미제와의 첨예한 력사적대결전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그려보이는데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있다.

전학민과 맥아더는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이라는 사변속에 서있다. 전학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자각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전학민의 운명은 조국과 인민의 장래와 련결되어있으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뜨겁고 열렬하다. 전학민에게 있어서 미제와의 전쟁은 우리의 혁명성과 우리의 혁명적의지, 우리의 결심을 증명하는 마당이고 조국에로의 진군길에 스민 투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의 계승이며 나아가서 통일에로의 길, 미래에로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허영심과 개인영웅주의, 시대착오적인 침략적망상에 미쳐날뛰는자이다. 맥아더의 정신적지탱점은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리익》에 기초한 극단한 개인영웅주의, 민족배타주의이다. 조선전쟁은 맥아더에게 있어서 호화로운 별장은 물론 조선이라는 기름진 땅에 대한 야수적갈망이였고 서울함락소식은 미국의 전략적패망이기 전에 저의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무서운 소식이였다. 그에게는 조선전쟁이 미국의 리익, 자기의 운명과 명예를 한편으로 하고 그와 대치되는 모든것을 다른편으로 하는 적아간의 싸움일뿐이였다.

작품에서는 기본상대인물을 단순한 침략자로만이 아니라 력사발전의 추동력,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의 관계문제 등에서 정치적견해와 립장이 대립된 인물, 운명적으로 대조되는 인물로 설정하고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소설의 인물관계는 무게있는 극적관계로 될수 있었으며 이것은 조선인민과 미제와의 력사적인 대결을 다만 적아간의 충돌로서만이 아니라 사상의 충돌 즉 개인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굳게 결합시키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민과 극단한 오만과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어 탐욕과 전횡으로 걸어가는 허수아비집단과의 사상적대결이라는것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진실하고도 생동하게 펼쳐보일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기본인물관계를 대결관계로 설정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사상적관계, 운명적관계로 되게 할 때 그러한 인물관계는 장편소설전반을 극적견인력이 있는 철학적이면서도 생동한 이야기의 흐름으로 펼칠수 있다.

적대적관계뿐아니라 사회주의현실에서 보게 되는 공부정의 관계를 취급한 작품에서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의 관계는 인생관의 차이에 기초한 사상적관계, 운명적인 관계로 그려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하고 그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오직 꾸준한 사상교양과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예리하고 심각하게 그린다 하여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것과 같이 청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호상간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것만큼 인물들의 관계도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단결이 더욱 강화되는것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들의 관계도 그들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깊숙이 맞물려놓아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하나의 사상과 리념에 기초하여 살며 투쟁하고있지만 사람들의 인생관의 깊이에서는 그 준비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인생관이 드러날수 있게 인물관계가 인물들의 교감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그들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밝혀낼수 있다.

실례로 장편소설 《청춘송가》에서 진호와 명식의 관계를 들수 있다.

그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단주의적인생관에서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다. 주인공 진호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깨끗한 인간이면서도 그 길에서 대바르고 강직한 면모가 부족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명식은 개인리기주의, 개인영웅주의의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격적기초로부터 진호는 실험에서의 실패와 사람들의 오해에서 번민을 하게 되며 명식은 실험에서 실패하고 제철소로 내려가는 진호의 깨끗한 마음을 두고 쫓겨가게 된 처지를 타당화해보려는 꾀변이라고 모욕적인 소문을 돌린다. 진호와 명식의 관계는 한마디로 인생관의 차이로 얹힌 관계이다.

작품에서는 진호가 당조직과 집단의 방조속에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호처럼 깨끗한 량심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개조되는 명식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어떤 성격의 갈등을 취급하든 등장인물의 관계를 운명적인 관계, 사상적인 관계로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작품에 제기하는 인간문제가 의의있는것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구체적인 종자에 의하여 제약되는 주제는 종자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작품전반의 형상적구조를 련상할수 있게 한다.

인간문제의 심오성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일단 심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잡아친 다음에는 인물관계를 비롯한 구성의 요소들을 종자의 요구에 따르는 작품의 구체적인 생리에 맞게, 인간문제를 해명하는데로 지향되도록 깊이있게 맞물려나아가야 한다.

장편소설의 인물관계설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인물관계의 지선들이 독자적인 형상과제를 가지고 주선에 극적으로 얹히도록 하는것이다.

인물관계의 지선들이 독자적인 형상과제를 가지고 주선에 극적으로 얹히도록 하는 문제는 구성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엮어 구성의 깊이, 극의 무게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즉 인물관계를 옳게 설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가, 중요한 사회적모순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가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결정한다.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서 극적으로 얹혀지게 하려면 매 인물들이 뚜렷한 형상의 뭉을 가지고 구성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차지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인물들이 주제와 사상을 밝히는데로 하나같이 합류해 들어가야 한다.

장편소설은 그 특성으로부터 인물관계의 주선과 지선의 합리적인 설정과 심화를 통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펼친다.

일반적으로 인물관계의 지선은 주인공과 부차적인물들사이 또는 부차적인물들호상간에 맺어지는 관계이다.

작품에는 이야기줄거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품의 시작부터 마감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몇개의 장면에만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다. 인물관계에서는 주요 인물들사이의 련계를 맺어주며 대립과 충돌을 강화하여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까지도 신중하게 타산되어야 한다. 모든 인물은 작품의 종자를 실현하는데서 크든작든 자기의 뭉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인물들은 형상과제가 있어야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목적이 서게 되고 다른 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행동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인물은 그 행동선에서 일관성이 있을수 없고 다른 인물들과 극적관계도 맺을수 없다.

작가는 매 인물들의 형상의 뭉을 규정함에 있어서 인물관계의 주선을 강화하고 이야기의 폭을 넓히는 극적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느만큼 기여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례로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중 장편소설 《녀성의 노래》에 설정된 지선들에 속하는 매 인물들은 다 소설이 제기하고있는 기본주제인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들의 운명문제, 녀성운동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시대적과제와 그 해결방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는 이야기줄거리에서 철저히 복종되고 지향되는 뚜렷한 형상과제들을 안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일단 등장하여 성격화된 인물은 인물관계선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인상깊은 일화를 삽입하기 위하여 등장한 인물, 탐구된 성격자체가 매력있다고 하여 설정한 인물로는 일관한 인물관계를 설정할수 없으며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돈구는데 도움을 줄수 없다. 물론 일관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주요계기, 사건전개의 주요계기들을 조건지어주는 화폭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물도 설정할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련쇄속에 맞물려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흥미있는 일화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물, 형상의 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자체가 매력있다고 하여 끌어들이는 인물은 대담하게 제거해야 한다.

장편소설의 인물관계설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주인공의 운명발전과정전체가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르는 극적체험의 심화과정으로 되도록 하는것이다.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어느 한 단계가 아니라 운명발전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극적체험을 강화해주는 관계가 바로 무게있는 극을 안고있는 인물관계이다.

일관한 기본상대인물을 설정한 경우에는 주인공과 기본상대인물의 관계발전의 전과정을 운명적인 대결의 심화과정으로 조직하여 극적체험을 강하게 안겨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관한 상대인물이 없는 경우 무게있는 인물관계의 극을 심화시키는 문제이다.

장편소설창작에서 일관한 기본상대인물이 없이 주인공에게 극적체험을 안겨주는 인물들을 여러명 설정하고 그들을 통한 극적체험과정,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생활의 급격한 파동속에서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릴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인공에게 극적체험을 안겨주는 시

대의 흐름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인물관계의 극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일관한 상대인물이 없다고 하여 극적인 인물관계의 심화과정이 조직되어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일관한 상대인물이 없다고 하여도 주인공이 시대적흐름속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고 그속에서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전진하고 성장하는 경우 해당 시대가 안겨주는 극적 체험은 어느 한 사람의 상대인물이 조성하는 극적체험과 비교될수 없는것이다. 여기서 시대의 변화와 발전은 추상적으로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들과의 대립과 충돌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관한 상대인물이 없는 경우에는 주인공에게 극적체험을 안겨주는 인물들을 기본주제를 체현한 인물들로 설정하고 형상의 력점을 찍어주는 문제가 제기된다.

장편소설 《고난의 력사》(제1부, 천세봉)에서 주인공 무림에게는 기본상대인물이 없다.

작품은 1920년대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의 우리 나라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농민운동의 불길속에서 그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현대진일가이다. 한평생 야장쟁이로 살아온 현대진로인의 손자 현무림은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일본인교원에게 매를 맞고 부자집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학교에서 뛰쳐나온다. 그는 일제를 반대하는 농민운동을 모색하는 야학선생 최선도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러나 야학선생이 죽자 인생의 옳은 길을 책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던중 무저항주의자이며 천도교인인 김대하의 영향도 받는다.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던 삼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자 점점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현실앞에서 갈 길 몰라 모대기던중 집을 뛰쳐나와 《동아일보》지국장 오흥도의 소개로 운송점에 들어가 일하던 무림은 광산에서 또다시 폭동을 일으킨 삼촌을 잡으러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하여 온 가족과 함께 체포된다. 얼마후 감옥에서 나온 그는 일제의 주구로 전락된 김대하가 력설하던 《타애》의 사상이란 어떤것인가를 깨닫고 허황한 세계를 방황해온 어제날과 단호히 결별한다. 그리고 최선도와 삼촌이 걸어간 길만이 민족해방의 리상을 실현할 길임을 깨닫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다.

작품에서는 현대진의 아들 5형제의 형상을 통하여 주인공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활, 각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농민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폭넓은 생활을 통하여 해당 시대의 본질과 시대상을 형상적으로 펼쳐보였다.

이처럼 인간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시대의 흐름과 변화가 주인공에게 극적체험을 안겨줄수 있다면 기본상대인물을 설정하지 않고도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과의 극적인 관계의 심화속에서 이야기를 펼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장편소설창작에서 인물관계설정의 방법은 부단히 창조적이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수법들을 더 많이 탐구하고 련마하여 시대의 명작들을 써냄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